

# 西序書目籤錄 解題

南 權 熙\*

- I. 西庫의 歷史的 背景과 意義
- II. 《西序書目籤錄》의 編纂經緯
- III. 《西序書目籤錄》의 分類體系
- IV. 西庫藏書에 關한 歷代書目

여기에서 소개하는 《西序書目籤錄》은 正祖16年(1792)에 西庫를 改建하고 書籍을 移置한 뒤 徐浩修와 徐有渠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奎章閣의 韓國本에 關한 書目이다. 이 책은 現在 日本 東京 駒澤大學圖書館의 濯足菴文庫에 소장된 筆寫本으로 奎章閣의 藏書를 研究하는 데 필수적인 資料가 된다.

## I. 西庫의 歷史的 背景과 意義

西序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西庫는 奎章閣의 韓國本을 收藏하던 곳으로 中國本을 保管하던 閣古觀과 皆有窩, 列聖의 御製·御筆 등을 모신 奉謨堂, 書籍의 曝曬와 移奉을 행한 書香閣 및 事務와 直宿을 담당하는 摛文院 등 그 밖의 外閣과 더불어 奎章閣制度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西庫의 別稱인 西序는 《內閣日曆》 高宗 2年(1865) 4月 23日의 金炳國 上疏記事에서 ‘西序大訓之列秘藏二西群籍之上炳…’이라 한 것이나 同王 4年(1867) 11月 1日에 景福宮의 새로 지은 奎章閣 上樑文중의 閔奎鎬 글에서

正廟精義瓶玆內閣宏謨稽 世祖別室之載營遂會通於今昔追 肅宗御書之扁揭儼制度於深嚴 西序大訓 東序河圖 三清群玉之會 甲部正經 乙部國史 二西萬卷之藏寶

라고 하여 西序가 大訓 즉, 聖帝明王의 本받을 만한 훌륭한 교훈을 收藏하는 곳임을 밝혀 이것이 바로 西庫의 역할을 나타내는 별칭이 된다.

따라서 西庫란 方位와 所藏處를 나타내는 用語이며 西序란 所藏內容과 그 機能을 나타내는 用語로 쓰여진 것이다. 그 밖에 《奎章閣志》에서 보이는 ‘群玉之府’ 역시 西序의 意味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西庫가 建립된 위치는 現在까지도 昌德宮에 남아있는 宙合樓의 서쪽이 되는 곳이며 正祖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元年(1777)에 건립되어 운영되다가 同王 15年(1791) 겨울부터의 공사 끝에 正祖 16年(1792) 3月 23日에 이르러 자리를 옮겨 새롭게 改建하여 좌우에 夾室을 각 2間씩 두고 大廳을 16間으로 만들어 書庫로 사용하였다.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하여서는 現在의 奎章閣에 소장된 《東闕圖形》에 ‘冊庫’라하여 그 평면도를 볼 수가 있고 高麗大學校 博物館과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된 《東闕圖》에는 立體的인 겨냥도가 나타나 있어서 그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高宗 5年(1868)에 景福宮이 중건되어 奎章閣이 옮겨진 뒤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한편 西庫에 수장된 藏書는 西庫의 설립이전에 廂庫나 弘文館, 貞願堂에 보관된 藏書와 正祖 5年(1781)에 江都外閣에서 일부가 옮겨져 왔고, 奉謨堂에서 同王 9年(1785)에 옮겨온 것 등 《西序書目籤錄》에 수록된 宙舍樓下에서 옮겨온 것을 위시하여 各 地方과 中央機關에서 刊行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蒐集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江都外閣이나 鑄字所의 東行閣으로 藏書가 옮겨지기도 하였다. 특히 《內閣日曆》 正祖 5年(1781) 3月 29日에 鄭民始가 皆有窩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宜春門을 옮기고 10間的 藏書庫를 짓자는 건의를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正祖 24年(1800) 4月 26日의 《內閣日曆》에서 西庫에 奉安중이던 御定新印冊子를 宜春門內的 兩庫로 옮기도록 한 사실에서 많은 移動과 더불어 宜春門 부근에 또 다른 書籍의 收藏處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은 移動의 원인은 正祖 22年(1798) 4月 15日의 《內閣日曆》에서 西庫의 書冊은 새롭게 인쇄한 것이 많아 자주 曝曬하여야 되지만 西庫가 너무 狹窄하여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비록 그보다 6년 전인 正祖 16年에 새롭게 改建하였으나 이미 이때에 이르러 포화상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純祖 2年(1802)에 이르러서는 點檢과 管理가 제대로 되지 않아, 同年 8月 11日의 《內閣日曆》에 의하면 冊을 收藏하는 제도가 전과 같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定式을 세워 시행하고자 한 기록에서 앞서 살펴본 藏書의 增加와 더불어 그 運營도 점차 해이해진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正祖年間에 많은 變遷을 거친 西庫는 그 藏書量의 면에서 현존하는 書目으로 비교할 때 正祖 5年(1781)에는 萬餘卷에서 《西庫藏書錄》이 作成된 正祖 14年(1790)에는 2萬餘卷에 이르렀고 본 解題의 대상이 된 《西序書目籤錄》이 作成된 同王 16年(1792)에는 2萬 5千餘卷이 되고 同王 19年(1795)의 《西序書目草本》에는 2萬 7千餘卷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그 이후는 많은 移動과 더불어 점차 줄어들었다.

## II. 《西序書目籤錄》의 編纂經緯

이 書目은 現在 日本 東京 駒澤大學圖書館의 濯足菴文庫에 貴重本으로 指定된 東裝本 1冊

이다.

濯足菴文庫의 原所藏者인 金澤庄三郎은 1911年(明治 44)에 발행한 그의 蒐集目錄인 《朝鮮書籍目錄》에서 이 書目的 見本 한장과 더불어 ‘西序書目 1冊, 奎章閣 西序의 書籍目錄’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書目的 存續過程은 駒澤大學圖書館에 소장되기 전에 金澤庄三郎이 大木山 永平寺라는 절에 기증되었다가 그가 1966년에 죽고 난 뒤 1974년 11월 12일 永平寺에서 駒澤大學圖書館으로 보존을 기탁의뢰하였다.

한편 이 書目이 언제 金澤庄三郎에게 입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1898년부터 1901년까지 4년간 日本文部省 留學生으로 韓國 京城에서 韓國語 研究에 종사하였던 그 시기에 구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物理的 形態로서 이 書目的 對照事項은 1冊(72張)이며 크기는 세로 25.1×가로 15.3cm로 著錄된 各張은 四周雙邊의 野板으로 미리 인쇄된 종이에 10行 20字, 작은 字는 두 줄로 쓴 筆寫本이다.

表紙의 書名은 《西序書目籤錄》이며 卷首題는 《西序書目》이라 記錄한 후 바로 御製御筆類부터 著錄되어 있고 版式은 半匡이 세로 16.7cm×가로 12.2cm, 版心은 上下向白魚尾와 아래에 張次表示가 있다. 특히 裝訂에 관하여 前間恭作은 《古鮮冊譜》에서 壯紙에 院筆로 淨寫한 것으로 裝綴도 白衣靑絲의 鄭重한 것이라 言及하였다.

이 書目的 成立時期를 考究하여 볼 때 먼저 前間恭作은 그가 이 書目을 보고 베낀 現存의 東洋文庫 所藏의 《西序書目》의 卷末에서 그 內容을 검토하고 西序書目草本에 의한 乾隆 癸丑年(正祖 17年)의 現存書目을 깨끗하게 베낀 것으로 淨寫時 그 類目 및 註記에 修正을 가한 것도 있다고 하여 正祖 17年(1993)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 書目에 나타나 있는 書籍刊行의 干支중 제일 늦은 것으로는 卷末의 〈西序別錄〉에 著錄된 ‘內下別置秩’에서 千歲曆 20部, 各 3本이 壬子新印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正祖 16年(1792) 壬子에 해당된다.

이 때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자료로서 《內閣日曆》의 正祖 16年 壬子 3月 23日 壬午條에 西庫의 藏書를 書香閣에서 改建된 西庫로 옮기면서,

書皆移置於書香閣 至是遷于西庫 上命檢校直提學徐浩修 待教徐有桀 監其役 自是月十五日始 正部次至二十三日而畢 略倣馬氏經籍考 其目有四 曰御定類也以眞紅籤標之 曰經類也以粉紅籤標之 曰史類也以靑籤標之 曰子類也以黃籤之 曰集類也以白籤標之 大凡四十五架

라 하여 書冊을 옮기면서 새로이 部次를 정하였다는가 書架의 수가 45架인 점은 본 書目에서 유별 제목뒤에 표시된 書架의 수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書目은 편성연도, 분류체제, 서가의 수까지 일치하는 《內閣日曆》의 記錄으로 보아 正祖 16年 3月 23日을 前後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이 書目을 살펴보면 잘 淨寫된 정도로 미루어 당시의 作業이 끝난 다음 草稿를 보고 다시 옮겨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15일에서 23일까지의 9일간은 書目에 著錄된 약 2萬 5千卷의 藏書를 옮기고 類別로 나누고 配架作業과 더불어 書目的 基本의 體系만을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에 맞추어 정리하였을 것이며 나머지 세부적인 기록은 점차 추가하여 完成하였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內閣日曆》의 같은 해 4월 3日 辛丑條의 記錄에서 車天輅의 《五山集》을 간행하여 毛面紙로 된 2件, 壯紙로 된 2件, 白紙로 된 10件을 西庫에 내려주고 있는바, 이 기록과 같은 내용이 본 서목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존하는 체제로서의 완성은 3월 15일에서 23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세부적 내용의 완성은 적어도 4월 3日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書目的 편찬을 맡았던 담당자에 대하여 검토하면, 앞서 前問恭作이 言及한 《西序書目草本》을 베끼고 淨寫時 類目과 注記에 修正을 가하였다는 것과 이 때 그 일을 담당할 適任者를 얻지 못하여 바꾸어 고친 여러 部分에서 엉성하게 편찬되어 있다고 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해제에서 결과만을 가지고 說明하자면 《西序書目草本》은 이 書目보다 늦은 正祖 19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베꼈거나 또 이 書目的 편찬에 徐浩修와 徐有槩가 王命을 받아 整理한 것이며 당대의 目錄學分野에서 大家였던 두 사람이 關여한 만큼 適任者를 얻지 못하여 엉성하게 편찬되어 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추리라고 하겠다.

오히려 그 체제가 이미 다르고 그 성립의 年代도 빠르다는 점, 특히 卷末의 〈西序別錄〉에서 ‘西庫舊件雜秩’ ‘內下別置秩’ ‘宙合樓下移來秩’ 등은 草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보다 먼저 만들어진 《西庫藏書錄》의 卷末에 收錄된 ‘內下舊件’과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著錄된 수에 있어서도 《西庫藏書錄》과 《西序書目草本》의 중간 정도를 수록하고 있어서 앞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書目的 편찬에 關하여서는 구체적으로 《內閣日曆》의 記錄에 의거하여 종합하면 당시 檢校直提學인 徐浩修, 待敎인 徐有槩 父子를 중심으로 당시 內閣의 關료로 역시 檢校直提學인 李秉謨, 朴祐源, 徐有防과 檢書官이었던 朴齊家, 徐理修, 成海應, 李功懋, 李德懋, 柳得恭 등이 關계되었을 것이나 徐浩修 등은 이미 正祖 5년에 《奎章總目》을 編纂하는 데 關하여 많은 經驗과 知識을 갖추었을 것이며 따라서 轉후의 事情으로 미루어 徐浩修와 徐有槩에 의하여 編纂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 Ⅲ. 《西序書目藏錄》의 分類體系

西庫와 關된 書目중에서 《西庫藏書錄》에 이어서 두번째로 編찬된 본 서목의 分類上 類門展開는 四部分類法에 기초한 甲, 乙, 丙, 丁의 四庫로 나누고 經, 史, 子, 集의 40類로

區分되어 있다.

이와 같은 四部分類法을 바탕으로 약간의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를 많이 따랐다는 것과 특히 御定, 御製, 璫牒璫譜類 등을 四部の 앞에 별도로 두었다든가 卷末에 〈西序別錄〉이라는 別置圖書에 대한 追加目錄의 형태로 細區分을 ‘西庫舊件雜秩’ ‘內下別置秩’ ‘宙合樓下移來秩’ ‘不秩’ ‘蠹破不用秩’ 등으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다.

한편 다른 書目에서 볼 수 없는 예로는 다음 表에서 나타난 것처럼 四部裝縹法の 適用과 書架別 主題配置를 뚜렷이 보여주는 書架目錄의 역할도 엿볼 수가 있다.

〈표 1〉 類・部別 色과 書架排列表

類・部別 區分	色籤의 區分	書架配列의 區分	書架臺數	收藏冊數	備 考
御製御筆類附廣韻類	深紅籤	第一厨		546冊	※第十一架表示
璫牒璫譜類附儀軌類	〃	第二厨		121冊	없음.
御 定 類	〃	第一架 止 第三架	[ 3臺]	1,921冊	[ ] 안은 十一
甲 庫 經 部	紅 籤	第四架 止 第十架	[ 7臺]	3,725冊	架가 있을 것
乙 庫 史 部	青 籤	第十二? 止 第二十四架	[ 1臺]	5,789冊	으로 계산한
丙 庫 子 部	黃 籤	第二十五架 止 第三十二架	[ 8臺]	2,722冊	것임.
丁 庫 集 部	白 籤	第三十三架 止 第四十五架	[13臺]	5,752冊	
		左右狹室		4,361冊	

이 서목에서 《文獻通考》〈經籍考〉의 體系를 略倣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때 선행의 여러 연구들에서 《朝鮮王朝實錄》의 正祖 5年, 《奎章總目》과 《西序書目》 2卷을 만들었다는 記錄에 의거하여 《西序書目》 2卷이 逸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本考에서는 正祖 14年에 만들어진 《西庫藏書錄》이 四部分類法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과, 바로 正祖 5年에 《西序書目》을 만든 徐浩修가 10년 뒤 자신이 만든 체계를 버리고 《文獻通考》〈經籍考〉를 模倣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증하기 어려운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四部分類法이 적용된 西庫의 最初 書目은 바로 《西序書目籤錄》이며 正祖 5年의 實錄記事는 계획에 그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이 書目的 體系를 略倣한 《文獻通考》〈經籍考〉와 당시 四部分類法으로 가장 발달된 까닭에 正祖 7年에 購得되어 그 活用度가 높았던 《四庫全書總目》과 《浙江採集遺書總錄》 등의 分類體系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살펴볼 때 《西序書目籤錄》의 分類上 특징은 전반적인 구조면에서 《文獻通考》〈經籍考〉를 기초로 하였으며, 用語나 順序 등은 중국의 《浙江採集遺書總錄》과 같은 書目 등이 참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群經類, 通史類 등은 《浙江採集遺書總錄》의, 起居注 등은 《文獻通考》의 영향을 받았으며 獨自의인 것으로는 條法類, 經濟類, 譯語類 등이 있는데 특히 譯語類는 《西庫藏書

<丑 2>

書目別 類門比較表

文獻通考·經籍考	西序書目彙錄	西序書目萃本	四庫全書總目	浙江採集遺書總錄
	御製御筆類 璫譜璫牒類 御定類	御製御筆類 璫牒璫譜 御定類		
	甲庫 經部	甲庫 經部	經部	
易書詩禮  春秋 論語 孟子 考經 經解 樂 謚法 讜緯 小學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群經類  小學類 六書類	總經類 易類 書類 詩類 禮類  三禮 家禮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  小學 音韻	易類 書類 詩類 禮類  周禮 儀禮 禮記 三禮 雜禮 春秋類 孝經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樂類 小學類 訓詁 字書 韻書	易類 書類 詩類  周禮類 儀禮類 禮記類 通禮類 春秋類 論語類 孝經類 孟子類 四書類 群經類 樂類 爾雅類 小學類 六書類
	乙庫 史部	乙庫 史部		
正史類 編年類  起居注 雜史類 傳記類 偽史類 霸史類 史評類 史鈔類 故事類 職官類 形法類	正史類 編年類 通史 運歷 起注類 雜史類 傳記類 總錄 零錄 史鈔類 史學類 掌故類 故事 儀注 典例 田賦 職官	正史類 編年類 通史  雜史類 傳記類 總錄 零錄 史鈔類 史評類 掌故類 故事 通制 儀制 職官 田賦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詔令 奏議 傳記類 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 史鈔錄 載記類 時令類	通史類 編年類 別史類 霸史類 雜史類 掌故類 總類 職官 食貨 儀制 兵制 河渠 水利 營造 傳記類 總類 以時代爲次

文獻通考・經籍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四庫全書總目	浙江採集書總錄
<p>地理類 時令類</p> <p>譜牒類 目錄類</p>	<p>條法類 地理類</p> <p>譜牒類</p>	<p>兵刑 考工 地理類 地誌 地圖</p> <p>譜系類 科譜 家譜 年譜</p>	<p>地理類 總志, 都會 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跡, 雜記 遊記, 外記 職官類 官制, 官箴 正書類 通制 儀制 邦計 軍政 法令 考工 目錄類 經籍, 金石 史評類</p>	<p>以地爲次 地理類 通志 名直省 山川, 名勝 古跡, 異域 史鈔類 史學類</p> <p>譜系類</p>
子 部	丙庫 子部	丙庫 子部		子 部
<p>儒家類 道家類 法家類 名家類 墨家類 縱橫家類 雜家類 小說家類 農家類 天文類 曆算類 五行類 占筮類 刑法類 兵書類 醫家類</p> <p>神仙家類</p>	<p>儒家類 經濟類</p> <p>天文類 曆象類 五行類 卜筮 堪輿 兵家類</p> <p>農家類 醫家類</p> <p>譯語類 藝玩類</p>	<p>儒家類</p> <p>天文類 曆象類 術數類 卜筮 堪輿</p> <p>農家類 醫家類 兵家類</p> <p>譯語類</p>	<p>儒家類</p> <p>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推步 算書 術數類 數學 點條 相寶 相墓 占卜 命書 相書 陰陽 五行 雜技術 藝術類 書畫 琴譜 篆刻</p>	<p>儒家類</p> <p>雜家類 說家類 總類 文格詩話 金石書畫 小說</p> <p>藝玩類</p>

文獻通考·經籍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四庫全書總目	浙江採集遺書總錄
釋家類 類書類 雜藝術類	道釋類 說家類 類事類	道釋類 雜家類 說家類 藝玩類 類事類	雜技 譜錄類 器用 食譜 草木蟲魚 雜物 雜家類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 類書類 小說類 雜事 異聞 瑣語 釋家類 道家類	類事類 叢書類 天文術算類 五行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釋家類 道家類
集 部	丁庫 集部	丁庫 集部	庫 部	集 部
楚辭類 別集類 詩集類 歌詞類 章奏類 總集類 文史類	總集類 楚辭 古文 奏議 詩 駢儷 功令 別集類 中國 高麗 東國	總集類 楚辭 古文 奏議 詩 駢儷 功令 別集類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詞曲類 詞集 詞選 詞話 詞譜 南北曲	總集類 以時代爲次 以地爲次 楚辭類  別集類 唐, 宋 金, 元, 明 國朝
	西序別錄	別 時 類		
	西庫舊件雜帙 內下別置帙 由合樓下移來帙 不帙 蠹破不用帙	不帙類 蠹破類 雜纂類		編次照前例 不列細目 副刻

錄》에서부터 韓國의 書目에 나타나는 것이며, 四部의 앞에 御製御筆, 璿譜璿牒, 御定類를 두는 점도 그러한 것에 속한다.



#### IV. 西庫藏書에 관한 歷代書目

西庫의 藏書에 대한 書目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체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서의 정리나 移動에 따라서 수시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까닭으로 여겨진다. 이제 그와 관련된 몇가지를 시대별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1. 東國文籍置簿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未傳書目으로 《西序書目籤錄》의 卷末에 收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前問恭作은 《古鮮冊譜》에서 西序書目的 初稿로 추정하였지만 石田義光은 臺帳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물이 없는 관계로 분명한 內容을 밝힐 수가 없는 실정이다.

##### 2. 西序書目

正祖 5年 辛丑(1781) 6月 庚子の 《實錄》 기사에서 《奎章總目》의 체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言及된 두 권의 書目이지만 전하는 실물이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3. 西庫藏書錄

현존하는 西庫의 書目중 그 著錄의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筆者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正祖 14年(1790) 5月 3日에서 同年 6月 4日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 書目은 그 記述面에서 印刷된 종이의 種類나 刊行時期 등이 자세하고 分類面에서 御定御製類나 諺解와 관계된 譯書類를 두고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 江都移來件이나 內下舊件, 奉謨堂移來件 등 西庫藏書의 構成에 관한 初期의 資料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 4. 西序書目草本

중래에 岡田信利의 所藏本이라 알려진 書目으로 서울大學校圖書館에 그 轉寫本이 있으며 그 원본은 日本 仙台市 東北大學 附屬圖書館의 狩野文庫에 所藏되어 있다.

이 書目的 著錄時期는 本文의 內容과 加筆의 內容으로 살펴볼 때 본문은 正祖 19年(1795) 9月 14日 以前이며 加筆은 純祖 初年頃까지 나타난다.

특징으로는 分類에서 總經類를 經部의 맨앞에 둔 점과 禮類와 小學類의 屬位區分을 한 점을 들 수가 있고 目錄記述上에서 著作의 機能表示와 版本區分, 出版事項을 가장 구체적

으로 기록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 版本의 轉寫本으로는 美國 캘리포니아 버클리大學 東洋圖書館 特別藏書 淺見文庫에 淺見倫太郎이 筆寫한 책과 日本 東洋文庫에 前間恭作이 筆寫한 책이 있고 서울大學校 圖書館 所藏本은 바로 前間恭作이 筆寫한 것을 다시 轉寫한 것이다.

5. 西庫書目

이 책은 현재 韓國 精神文化研究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著錄의 時期는 高宗 5年(1868) 7月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

특징으로는 수록된 藏書數가 앞의 書目보다 반이상 줄어 들고 分類에 있어서도 細區分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체계는 《西序書目草本》을 유지하고 있다.

6. 《奎章閣書目》중의 〈西庫書目〉

이 書目은 摛文院書目, 閔古觀書目과 함께 한 帙을 이루는 것으로 著錄의 時期는 高宗 13年(1876) 頃이다.

체계는 四部分類法이 아닌 書架의 排列을 전체 44架로 나누고 부분적으로는 같은 주제의 책이 群集된 형태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書籍의 移動時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만들어진 點檢用 書目으로 추정된다.

7. 《奎章閣書目》중의 〈奎章閣樓下庫冊目錄〉

이 書目은 樓上庫, 前弘文館件을 합하여 한 帙을 이루며 著錄의 時期는 光武 11年(1907) 즉 隆熙 元年頃이다.

역시 四部分類法이 무너진 書架別 總 25架의 區分과 별도의 不帙類를 收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리중의 점검용 書目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書目은 奎章閣의 韓國本을 收藏하였던 西庫의 書目中 正祖 16年頃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書籍分類에 대한 知識과 書目에 대한 理解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아울러 당시 간행되거나 소장된 책을 통하여 出版文化의 一面과 圖書館 制度를 엿볼 수가 있다.